



WNA, 메시지를 통해 COP26에 원자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UK 2021

IN PARTNERSHIP WITH ITALY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Sama Bilbao y Leon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 26회 UN 세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이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장인 Alok Sharma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밝혔다. 8월 16일에 발송된 서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번 COP26의 Green Zone을 위해 제출되었던 모든 원자력 활용방안이 반려되었다는 뉴스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일이 COP26 전반에 걸쳐 원자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자력이 우리는 의장님을 비롯한 COP26 조직위원회가 원자력을 공정하게 취

급하고, 원자력이 수많은 전문기관에 의해 추천을 받은 만큼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들과 동등하게 반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8월 12일 발표된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대표 보고서는 원자력이 기후 변화와 싸우고, 보다 탄력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심축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단적인 관점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EA(국제에너지기구), OECD-NEA(OECD 원자력기구), 미국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전 세계에 걸친 전문기관들은 원자력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요소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또한 IPCC의 “middle-of-the-road” 시나리오는 사회, 경



제, 기술적인 발전이 현재까지의 수준과 같고, 인류의 식습관과 이동과 여행 습성에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영향이 있지 않는 이상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는 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OP26 시작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주 발표된 이 IPCC의 자료는 진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적이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 최고의 방법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큰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다른 저탄소 기술과 함께 탈탄소화를 지속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가능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아직도 우리가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합니다.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 수요의 상당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잠재력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비용, 365일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지속성과 탄력성, 저탄소에 대한 신뢰성 등 고유의 장점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임을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COP26은 미래의 인류애를 재정의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전 세계의 대응을 가속화하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확고한 포부와 정치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는 오는 11월 영국의 사려깊은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COP5 이후로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세계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원자력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글래스고에서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MIF**